

수입산 맞선 ‘고급화’ 전략 통했다 한우 품질, 30여년 간 ‘고속성장’

농진청, 1990년대 이후 데이터분석
한우 평균체중 증가, 마블링 개선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가차원 품질 중심 고급화 확립

한우의 품질이 지난 30년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1990년대 맺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 이후 들어온 다량의 중저가 외국산에 맞서, 고급화 전략으로 선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농촌진흥청이 29일 설명했다.

농진청은 “1990년대~2020년대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우의 성장 성적과 육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6개월령 한우의 체중은 평균 144.7kg에서 157.7kg으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증가(31.4%)했다.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도도 3.62에서 5.10으로 개선됐다. 특히 16개월령 이후 소에서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와 사양 기술의 정밀화가 품질 고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우 산업이 고급육 중심 체계로 전환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다.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 소고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 대신 품질 중심의 고급화 전략으로 방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한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향을 틀었다. 이후 국가차원의 개량 정책과 연구개발이 집중되면서 고급육 생산·유통 체계가 확립됐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한우는 오늘날 ‘K-상표’의 한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이르렀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품질 혁신을 이끌기 위해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3년부터 한우 개체의 형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유전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했고, 90년대 말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 체계로 전환했다. 2017년에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수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 평가 정확도를 5~11%포인트(p) 높였다.

2020년부터는 농가 암소 대상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해 혈통 정보 기반일 때 40%였던 농가 보

유 암소의 유전능력 예측정확도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60% 정도로 20%p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암소 선발 효율과 출하 수익이 함께 높아져 연간 경제적 효과는 113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한우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육성기에는 양질의 건초를, 비육기에는 볏짚 위주로 급여해 영양 균형과 사료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 이러한 관리 기준은 2022년 개정된 가축사양표준에도 반영돼 농가의 사양설계와 사료 배합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진청은 향후 ▲사료 효율과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유전개량 및 사양기술 고도화 ▲온실가스 저감 ▲고온기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김진형 부장은 “한우의 고급화는 지난 30여년간 축산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연구와 데이터가 실제 한우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물 고급화는 물론, 비육 기간 단축,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무보, 파나마 메트로 하저터널 건설 지원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참여
총 6억 달러 규모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9일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하저터널 건설’ 사업에 6억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나마 수도권 파나마 시티와 서부 아라이한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11개 역사와 모노레일, 하저터널 건설이 포함된 파나마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사업이다. 무보는 이번 지원

에서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 대출 방식이 아닌, 수출 건설사가 공사 이행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조기 유동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부채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국내 건설사는 무보 보험을 활용해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미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보 관계자는 “유동화 방식 금융지원은 2021년 파나마 메트로 1차 금융지원 때 처음 도입했었다”며 “고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금융 경쟁력이 이번 우리기업의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 설명했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협력 중소기업 14개사와 함께 약 3000만달러 규모의 기자재(공조설비·발전기·케도빔 등)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및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고객 맞춤형 금융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 성과”라며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Invest)과의 협력도 확대해 중남미 수주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구 두류동 등 상습침수 17곳 집중관리

기후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두류동, 중남 서천군 장항읍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올해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

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부는 지정된 17곳에 대하여 총 83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 84km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1조 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이 지정 제도는 하수법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8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지원 소비쿠폰 결제 가능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소비쿠폰 효과’ 유통업체 매출 7.7% ↑

산업부, 9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온·오프라인 23개사 매출 16.4조 ↑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1.0% 줄었지만, 온라인이 16.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3주 가까이 늦어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민생 소비쿠폰과 명절 선물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의 합산 매출은 16조 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은 각

각 3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7·9월) 효과로 즉석식품과 담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견조하게 팔리며 매출이 0.9% 늘었다.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백화점도 식품·주얼리 등 고가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4.8% 증가하며 매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대형마트(-11.7%)와 준대규모점포(-0.2%)는 추석 시기가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주말·공휴일 중심 매출 구조 탓에 방문 건수가 줄었고, 전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했다. 추석 연휴 이동과 휴일 감소가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60개 시정요청

공정위, 금융거래 약관 전수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

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사우디서 192만 달러 수출협약

‘리야드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농업박람회(19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2025 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 행사장 내에 한국관을 운영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이 농업박람회는 사우디 최대 규모 농업박람회로, 중동권 농업 교류·거래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농어촌공사는 국내 기업의 중동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조성하고 홍보에 나섰다.

특히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이



농어촌공사가 ‘2025 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부터 국내기업과 중동권 구매기업을 연결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지에서 274건(6025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12건(192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